

# “광주~완도 고속도로 조기 건설해야”

## “사업성 높은 광주~해남 옥천 구간 先추진을” 전발연, 낙후지역 개발·균형발전 접근 필요

전남도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경기 활성화, 국가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확보 등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기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발전연구원 조상필 선임연구

위원은 24일 발간된 '리전인포'를 통해 “광주~완도 고속도로는 낙후 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과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사업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대구 고속도로(새만금~전주, 무주~대구) 사업과 같이 광주~해남 옥천(73.6km)과 해남 옥천~남창(15.7km) 구간으로 구분, 사업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광주~옥천 구간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문산, 전주~논산, 서울~강화, 동해~삼척, 거제~통영, 포항~영덕, 새만금~대구, 양평~이천 등의 도로 건설사업은 모두 경제성 기준인 B/C

(비용편익비) 1.0 미만이지만 국회에서 예산 확정 및 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됐다”며 “광주~완도 구간 역시 낙후지역 도로사업인 만큼 낙후지역 및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광주~완도 고속도로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간선도로와 접근성 개선 효과, 지역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 간접 편익항목 추가 분석 방안을 요구했다.

낙후지역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의사결정 변수에 대한 가중치도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광주~완도 고속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등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사업 조기 추진을 요구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해남 황산면에 화장장

## 130억 들여 화장로·봉안당 갖춰

해남군 황산면에 화장로와 봉안당 등의 최첨단 장사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이 조성된다.  
해남 화장장은 특수적 성격의 고품소속도를 제외할 경우 사실상 전남지역 근 단위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남군은 24일 “지난 22일 오후 전남 해남을 해남문화재단 다목적실에서 열린 공설추모공원 건립지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한가람경제연구소는 황산면 원호리를 최종 후보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가람경제연구소 김용범 책임연구원은 이날 “최종 후보지로 올랐던 세 개 구역 중 성진리와 후보지 적정

성에 대한 분석 결과 황산면 원호리가 36점으로 33점의 성진리보다 높아 1순위 후보지로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 측은 황산면 원호리의 장점으로 인근 마을과 도로에서의 완벽한 차폐와 인접지역과의 근접성, 완만한 형태의 계획부지로 재해로부터 안전성, 부지조성의 저렴한 비용 등을 꼽았다.  
해남군의 공설추모공원은 8만 3000㎡의 부지에 130억원을 투입해 화장로 3기와 봉안당 3000㎡, 자연장 3만6000㎡ 등의 장사시설이 들어선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김중식 완도군수가 최근 군민들로부터 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목민 운동화인 일명 '박람회 성공화'를 선물 받았다. 고금면 변영회(회장 김소남)는 지난 23일 군수실을 방문, 오는 2014년 완도국제 해조류 박람회 성공 개최를 바라는 의미에서 김 군수에게 운동화를 선물했다. /완도=정은주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 신안 농업폐기물 수거 '일석이조'

## 7년간 1만4천t 수거 주민 소득향상 기여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영농 폐기물 수거사업이 섬 주민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신안군은 24일 “폐비닐, 농약 빈병이 없는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과 각 마을이 1만4153t의 폐기물을 수거했으며 이에 대해 군이 수거 장려금 3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민 소득원이 된 영농 폐기물 수거 사업이 7년간 계속되면서 섬 곳곳이 달라지게 깨끗해져 환경오염과 미관을 해치는 폐비닐, 농약 빈병이 발이나 눈 주변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군은 설명했다. 박우량 군수는 “앞으

로도 영농폐기물 수거 방법,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청정 섬 조성과 함께 주민의 농외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올해 수거 장려금도 대폭 올렸다. 흙과 오물 등이 없는 폐비닐 1등급은 kg당 200원, 2등급 180원, 3등급 150원으로 지난해보다 30원 인상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해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가전제품 수거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안=이성선기자 sslee@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옥암택지 남은 땅 30만㎡ 매각 온힘

## 목포시, 재원 조달·신도시 조기 활성화

목포시가 부족한 지방재원을 조달하고 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옥암 지구 택지 매각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옥암지구 매각대상 817필지(117만4267㎡, 매각대금 5680억원) 가운데 771필지(87만2037㎡, 4283억원)는 이미 매각이 완료됐으나 46필지(30만2230㎡, 1396억원)는 여전히 남아있다. 매각되지 못한 토지는 1단계가 41필지(5만227㎡, 354억원)이고 2단계는 5필지(25만2002㎡, 1042억원)다.  
1단계는 ▲지선민 생활용지주택(상업용지) 8필지 8187㎡, ▲공공용지(학교용지, 청사용지) 3필지

2만8129㎡, ▲실수요자 택지 30필지 1만3910㎡(단독주택 20, 준주거지 2, 상업지 5, 주차장 3) 등이 있다.  
2단계는 블록형 단독주택 2필지, 대학부지 1필지, 위험물처리 시설 1필지, 도시지원 시설 1필지 등에 25만2002㎡다.  
목포시 도시개발 사업단은 단독주택 택지 조기매각을 위해 5년 전 가격으로 선착순 분양하되 중도금을 앞선하고, 토지매수자와 협의해 조기 상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안도 내놓았다.  
또 지선민 생활용지 8필지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다음달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블록형 단독 주택용지도 개발계획을 변경, 용적률을 100%에서 150%로 상향조정할 이후 주요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해 일괄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간 동안 실수요자가 없는 도시지원시설 역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치중 도시개발 사업단장은 “옥암 지구 택지 매각을 조기 완료해 투자자원을 확보하고 용자금을 조기 상환시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해남, 마을기업 육성사업 31일까지 공모

해남군은 24일 “오는 31일까지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전 단계로 마을기업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및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대상은 마을 대표가 중심이 돼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한 마을 공동체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수익사

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마을기업은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의 자로, 마을주민 5인 이상이 출자·참여하고 지역주민의 비율이 70%를 넘어야 한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에 지정되면 2000만원,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1차년도에 5000만원, 다음해에는 300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진도, 녹색 생활 실천마을 7곳 뽑는다

진도군은 24일 “올해 주민들간 상호 협력을 통해 녹색 생활을 실천할 녹색 생활 실천마을 7곳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녹색생활 실천마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주변 환경개선과 녹지 조성, 에너지 절약, 탄소포인트 참여 등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동참하는 마을이다. 진도군은 군비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음달 공모를 실시, 7개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진도=박현경기자 hyppark@

진도군은 버려지는 폐자원 모으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꽃길(꽃동산) 조성 등 마을 가꾸기와 우리동네 청소하는 날 운영,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하지 않고 유기질 비료만 사용하기 등 마을별 특색 있는 녹색생활 실천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마을에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 녹색 생활 실천에 앞장서 진도군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박현경기자 hyppark@



지난 23일 진도를 대파 작업장에 나가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는 진도군 보건소 직원.

# 진도 '찾아가는 건강검진' 호응

## 군 보건소, 취약계층 대상 대파·울금 작업장 등 방문

진도군 보건소가 환파 등으로 건강이 악화할 수 있는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집중 실시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역 실정에 맞게 대파, 울금 등 겨울 채소류 작업장 97곳에 대해 찾아가는 방문 건강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 작업장에는 고령자나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 환자들

이 많아 진도군은 자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절염 정도에 따라 운동 치료사와 연계해 향후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기초건강 체크를 통해 질병관리와 만성질환자의 약물복용지도, 치매조기검진, 재활, 영양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금연, 절주, 운동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함께 제공해 보건소가 지역민 건강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진도=박현경기자 hyppark@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교육교사는 어학이점과 가정어학이점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2013년도 제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보육교사 자격 취득 등!!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30~1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제출서류

-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3년 2월 7일(목) 오전 10시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3년 1월 14일(월) ~ 2월 6일(수)
-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3년 2월 6일(수)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문의할 곳

교학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 krimsen@hanmail.net
-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광신대학교 교학처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칠만표 방수제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